

# 통합돌봄 강화와 퇴원환자 연계사업 개편



전용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며, 급성기 입원 노인과 중증 질환자의 재가 복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입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돌봄·복지·주거 서비스를 미리 설계하고 연결하는 체계로서, 재가 돌봄 실현을 위한 핵심 고리다. 이미 복지 선진국들은 퇴원 전후 일정 기간을 집중 지원 구간으로 설정한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불필요한 재입원과 재정 낭비를 막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다.

현재 현장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퇴원 후 연계의 부재이다. 임상적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

라도, 필수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결국 요양병원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사례가 빈번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의 분절성이다. 현재 보건복지 현장에서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명목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다섯개나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지침에 따라 파편적으로 실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행정적 혼선이 가중되고 지역사회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와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유사 사업들을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나의 일원화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대상자 발굴과 지원 내용이 제각각인 사업의 지침과 재원을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단일한 퇴원환자 지원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 거점 병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실질적인 삼자 협력 체계 가동이다. 병원은 입원

초기부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퇴원 후 복합 욕구를 평가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이를 전달받아 지역 내 보건·복지·주거 자원을 총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원 직후의 공백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병원 내 전사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퇴원 계획수립과 지원 발굴을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소수 인력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연관된 담당 진료과를 중심으로 병원 내부에서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막중한 연계 실무를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노동 강도와 전문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 간의 구조적·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의 협력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노인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 대표

# 외국인 북적이니 매장, 앓아진 내국인 지갑



김서현 (유통&라이프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유통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외국인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실제 주요 유통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화려함 그 자체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매출의 4분의 1 가까이를 외국인이 채웠고, 신세계백화점은 외국인 매출만으로 '연간 1조 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 매출이 두 배 넘게 뛰며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편의점인 GS25와 CU 또한 외국인 결제 매출이 60~70% 이상 급증하며 'K-편의점'의 위상을 증명했다.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이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

으니, 유통가 입장에서선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형국이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편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매장을 가득 채운 외국인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와 달리, 우리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탓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7.8포인트나 급락하며 100 아래인 99.2로 떨어졌다.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인 이들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에게는 축제의 유통 매장이 내국인에게는 선뜻 지갑을 열기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의 중심에는 '환율'이라는 양날의 검이 있다. 달러당 1490원까지 치솟은 고환율은 방한 외국인들에게 강력한 구매력을 선물했다. 그들에게 한국은 고품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쇼

핑 천국'이 됐지만,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을 견뎌야 하는 내국인들에게 고환율은 생활고를 가중하는 고통의 원인이다. 외국인이 럭셔리 주얼리와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동안, 우리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채소 하나 가격에 손을 떨며 지갑을 닫고 있다.

결국 지금 유통가가 누리는 호황은 외부 요인에 기댄 '반쪽짜리 활력'일지도 모른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실적을 떠받치고는 있으나, 내수 소비라는 기초 체력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언제든 대외 환경에 따라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가변적인 수요다. 유통업체가 외국인 특수에 취해 정적 안방 고객들의 아우성을 외면한다면, 환율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 마주할 내수 시장의 공동화 현상은 감당하기 힘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화려한 매출 신기록에 가려진 위기를 직시해야 할 때다.

/seo@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3일 (음 3월 27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꾸준한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60년생** 항상 입조심을 하세요. **72년생**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원대한 꿈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  **49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1년생**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73년생** 사리판단을 반드시 분명히 하세요. **85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  **5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62년생** 잠시 여행을 떠나세요. **74년생** 명상은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6년생** 동북방에 찾고자 하는 사람이나 물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51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3년생**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75년생** 자신을 되돌아 보는 하루를 차분히 가지세요. **87년생** 오늘은 학업운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  **52년생** 친구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귀인이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76년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8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고요한 산신의 모습입니다.
-  **53년생** 마음이 매우 편하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65년생** 우연히 남의 재물이 내손 안에 저절로 들어옵니다. **77년생** 하늘이 아주 큰 복을 줍니다. **89년생** 바라던 소원을 능히 풀 수 있습니다.
-  **54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매우 길합니다. **66년생** 가정에 좋은 경사가 생깁니다. **78년생** 회사에서 좋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90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되도록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해롭습니다.
-  **55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67년생** 강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79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크게 무방합니다. **91년생**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치유될 것입니다.
-  **56년생** 오늘은 시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8년생** 조용히 근신하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80년생** 스스로 지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2년생** 설부터 설레발은 매우 안 좋습니다.
-  **57년생**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언행일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81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반가운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  **58년생** 큰 금전거래는 삼가하세요. **70년생** 마침내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2년생**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득남할 것입니다. **94년생** 그동안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  **5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1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모든 방향이 갈팡입니다. **95년생** 재물운이 좋겠습니다.

# 김상회의 四季 업(業)의 상속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업이 안 좋아서, 업을 잘 못 닦아서.."라고 한다. '업보(業報)'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에는 인과응보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일까? 한자어 '업(業)'은 '지을 업'으로서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행위를 뜻한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입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짓는 말이나 행위가 전부다. 즉, 업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내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말과 몸과 생각이 나의 다음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구절과도 상통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작자수(自作自受) 또는 자업자득(自業自得)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지난 2월에 함양 산불 방화범을 잡고 보니 상습범으로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 희열이 나서 충동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96회나 산불을 냈고 이로 10년이나 복역했으나 출소 후 또 산불을 냈다.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면 희열감에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니 도대체 이 사람의 전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산불이 나면 나무만 타죽는 것이 아니라 그 숲에 있던 동물과 벌레 등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생명을 잃는다. 물어볼 가치도 없는 그의 업식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로마제국 시절 네로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읊었다는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기함을 한다. 석가모니는 우리 모든 존재는 업의 상속자요, 업만이 자기 재산이라고 하였다. 굳이 윤회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한 일의 궤적이 업이며 그 업의 궤적에 따라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 '업보'이다. 우리는 업의 상속자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뷰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3			5	6		7	8
6		2	7					5
					5		6	
9		7					1	
3								6
	4					7		9
	2		8					
4					2	1		7
7	6		4	8			2	1

9				3				2
		1		2	6	9		
	8	6				5	3	
4	6		3		2			
	1							2
				4		8		9
		9	3				2	1
			2	5	3		1	
5			2					3

1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1
3	4	5	6	7	8	9	1	2
4	5	6	7	8	9	1	2	3
5	6	7	8	9	1	2	3	4
6	7	8	9	1	2	3	4	5
7	8	9	1	2	3	4	5	6
8	9	1	2	3	4	5	6	7
9	1	2	3	4	5	6	7	8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